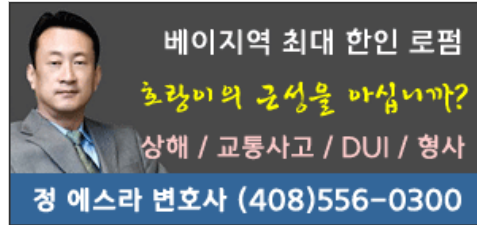


# 다솜한국학교, 추석 행사로 차세대에 한국문화 전달

by KDT posted SEP 17, 2024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14일 추석 행사를 통해 차세대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날 학생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추석 행사에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다솜 한복집'을 운영하고, 송편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14일 다솜한국학교에서 추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전남진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권미정 교사의 지도로 송편 빚기에 열중했다.

송편이 익어가는 동안 학생들은 박은경 교감의 '추석 어휘를 찾아라' 놀이를 하며 추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박은경 교감의 지도 아래 '추석 어휘를 찾아라' 놀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

특히, 단원 김홍도의 씨름 그림을 보며 선조들이 즐겼던 씨름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 학생들은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청백팀으로 나뉘어 엉덩이 씨름, 팔씨름, 무릎 씨름을 벌였다.



<학생들이 한국 고유의 놀이인 '씨름'을 하고 있다.>

최미영 교장은 “졸업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는 송편 빚기는 한국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라며 “이번 추석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문화를 배우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솜한국학교, 추석 행사로 차세대에 한국문화 전달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최 교장은 “미국 속 한국학교의 역할은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국문화를 전달하고 재창조하며 나누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이 송편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온안 기자>